

탁아소 2백40곳 설치

92년까지

보사부 맞벌이夫婦 돕게 5百91億 들여

보사부는 오는 92년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천2백40개의 탁아시설을 설치,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올해 1백91억원을 들여 50개의 탁아소를 새로 만들고 2백50개의 새마을아일등 기존시설을 탁아소로 전환하는데

이러 내년에는 4백억원을 투입, 50개소를 신설하고 3백55개의 새마을아일등 탁아소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보사부가 이처럼 탁아시설을 대폭 설치키로 한 것은 저소득 계층의 자립을 위해서 이들 계층의 자녀를 맡아 주며 부부가 맞벌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가장

다.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의 탁아시설은 정부지원 탁아소 2백50개소 지방자치단체운영 탁아소 1백3개소 직장탁아소 19개소 민간시설 탁아소 15개소가 있다.

정탁아소 1백89개소를 모두 5백76개소로 3만여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현재 탁아소 이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아동은 82만명에 이르렀다.